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
江原日報	23면	[동정] 권혁열 도의장(강릉·사진 왼쪽)·심오섭 도의회 사회...	1
江原日報	18면	[춘기 석전대제] 강릉향교	1
강원도민일보	16면	[춘기 석전대제] 철원향교	2
江原日報	16면	[춘기 석전대제] 홍천향교	2
江原日報	18면	강릉축협 송정 해안로지점 기공식	2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군 도의원 도비확보 전략 간담회	3
강원도민일보	20면	한림성심대 하이브 사업 성과공유회	3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진종호(양양)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이승진(비례)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5면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정기총회	4
江原日報	온라인	횡성군농업인대학 104명 입학	5
강원도민일보	20면	백두대간보전회 30주년 기념행사	6
江原日報	22면	군장병에 ‘짜장면 잔치’ 열어준 주민들	6
江原日報	23면	새마을 정신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 다짐 “잘살아보세”	7
강원도민일보	20면	"새마을 조직 사랑 넘치는 도민의 벗으로 거듭난다"	7
ms투데이	온라인	강원자치도의원 의정비 6000만원대?도민 평균 연봉 1.7배	8
강원도민일보	02면	폐광 실업자만 2561명...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9
江原日報	05면	양양군 트랙 업체 시공품질 검증 '주먹구구'	9
江原日報	01면	춘천 기업혁신파크 내년 말 착공 급물살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매년 외국인 10만명 즐기는 글로벌 '화천산천어축제' 성장	11
강원도민일보	16면	양구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농사 짓는다	11
江原日報	20면	동해 전지훈련 오면 400만원 파격 지원	12
강원도민일보	05면	포근한 날씨에 벌써부터 꽃눈 빼꼼, 봄꽃 축제 빨라진다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중국 전자상거래 피해 막아야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물가 공포에 실업률민생 챙겨야	15

江原日報	25면	[사설] 윤 대통령도 약속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16
江原日報	25면	[사설] 道 취업자 수 감소세, 고용시장 대책 마련해야	17

2024 03 14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도의장(강릉),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강릉)은 15일 오후 5시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에서 열리는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공개행사에 참석.

한창수(횡성) 부의장, 엄윤순(인제) 농림수산부위원장, 최종수(평창).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춘천 도농업인단체회관 3층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제2.3대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김길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30분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락앤홀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임미선(비례) 도의원은 15일 오후 5시 춘천 퇴계농공단지운영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 제11대.제12대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은 15일 오후 3시30분 고성군수협 본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거진 연승협회 결산총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속초시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동명동 통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에 참석.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15일 오전 10시30분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락앤홀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오색관터 주차장에서 열리는 남설악산악구조대 시산제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16일 오후 2시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춘천시 민축구단 홈경기개막전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3 15 ()

23



◇권혁열도의장(강릉·사진 왼쪽)·심오섭도의회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강릉)은 15일 오후 5시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전수회관에서 열리는 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공개행사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3 15 ()

18



강릉향교 강릉향교 춘기 석전대제가 14일 향교 대성전에서 초헌관 허병길 성균관유도회 강릉지부 회장, 아헌관 최필순 강릉향교 예절원장, 종헌관 동석범 성균관유도회 강릉지부 부회장을 비롯,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양원모 부시장 및 유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16



철원향교 철원향교(전교안창모) 춘기 석전 대제가 14일 향교 대성전에서 초헌관에 박경우 부군수, 아헌관에 김정수 도의원, 종헌관에 엄기호 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2024 03 15 ()

江原日報

16



흥천향교 흥천향교(전교:안상호)는 14일 흥천향교 대성전에서 신영재 흥천군수, 박영록 흥천군의장,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2024 03 15 ()

江原日報

18



강릉축협 송정 해안로지점 기공식 강릉축협 송정 해안로지점 신축 기공식이 14일 강릉시 송정동 산30 현지에서 신숙승 조합장, 최승순 도의원, 김영식·권순민 시의원 등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17



고성군 도의원 도비확보 전략 간담회 고성군은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함명준 군수,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이지영 도의원, 실·국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20



한림성심대 하이브 사업 성과공유회 한림성심대 HiVE사업단은 지난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문영식 한림성심대 총장,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흥천군수, 권혁열 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HiVE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17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속초시 동

명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동명동 통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17

제에 참석한다.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오색관터

주차장에서 열리는 남설악산악구조대 시산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09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16일 오후 2시 송암스포

츠타운에서 열리는 춘천시민축구단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15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회장 김대성) 정기총회가 14일 오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황성현 부군수,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김성기 부의장과 군의원, 군내 8개 읍·면노인회 임원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유공회원 표창과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2024 03 14 ()

江原日報

횡성군농업인대학 104명 입학



2024년 횡성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이 14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2024년 횡성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이 14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2024년 횡성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이 14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횡성 횡성군농업인대학이 4개 과정 104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강했다.

횡성군농업인대학은 14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학장인 김명기 군수와 김영수 군의장과 백오인·유병화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과 최규만 도의원, 이경중 송호대 총장, 김나영 송호대 평생교육원장, 임종완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입학식을 열었다.

올해 열네번째 입학식을 가진 횡성군농업인대학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는 식품 크리에이터 과정, 지역 주요 작목 재배 기술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을 하는 미래 농업인 과정, 양봉 이론과 현장실습 및 양봉 관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는 양봉 교육 과정, 지역 리더의 리더십 함양 및 전문 농업 경영교육을 하는 농업경영 최고사관(CEO) 과정 등으로 나눠 현장실습 위주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김명기 군수는 “올해도 알찬 교육을 지속해 횡성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20



백두대간보전회는 14일 동해시 뉴동해관 광호텔에서 '2024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개최했다. 전인수

백두대간보전회 30주년 기념행사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남북으로 1400km에 이르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백두대간의 민족적·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4년 순수 민간단체로 결성된 백두대간보전회가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고 백두대간과 겨레를 살리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백두대간보전회(회장 최종복)는 14일 오후 4시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 의장, 김기하·최재석·유순옥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백두대간보전회원, 산림 관련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영선 회원이 산림청장 표창장을, 이동수·우준희 회원이 동해시장 표창장을, 이진태·김명숙 회원이 국회의원 표창장을, 최영춘·민경자 회원이 백두대간보전회장 표창장을 각각 받았다. 이어 남성현 산림청장과 심규언 동해시장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4 03 15 ()

22



◇화천군 사내면 남·여의용소방대는 지난 12일 15사단 독수리여단을 찾아 짜장면 나눔행사를 가졌다.

군장병에 '짜장면 잔치' 열어준 주민들

【화천】화천군 사내면 주민들이 군장병들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를 열어 화제다.

사내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이장호)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성미자)는 지난 12일 15사단 독수리여단을 방문해 350여명의 장병에게 짜장면을 제공하며 격려했다.

사내면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철가방'을 비롯해

박대현 도의원, 이선희 군의회 부의장, 류희상 군의원, 박명숙 사내면 명예면장도 힘을 보탰다.

이장호·성미자 대장은 “여단 예하 부대도 순회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희환 50여단장은 남·여의용소방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군부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영기자

새마을 정신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 다짐 “잘살아보세”

도새마을회 홍순선 회장 취임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제19대 홍순선 회장(사진)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도새마을회는 14일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 별관 2층 신라홀에서 제18대 회장 이임식 및 제1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형배 제18대 회장이 이임하고 홍순선 제19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과 도의원,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과 시의원,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지역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18대 회장 이임식 및 제19대 회장 취임식이 14일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 별관 2층 신라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도새마을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단체장, 도새마을회 단체장, 시·군 새마을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순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

배 동료들이 이루어 놓은 발전을 토대로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가족들의 다양한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새

로운 도약을 모색하겠다”며 “현장에서 고견을 듣고 실현 가능한 것들은 바로 실천하는 등 소통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의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국가에서 와서 보고 배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한 새마을운동 덕분에 세계 속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새마을회가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목기자

강원도민일보

“새마을 조직 사랑 넘치는 도민의 벼으로 거듭난다”

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

홍순선 신임 회장 임기 시작

“새마을 운동 정신 계승 발전”

홍순선(사진) 새마을운동 동해시지회장이 제19대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으로 취임,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14일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박형배 제18대 회장 이임식 및 홍순선 제1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전역 찬 강원경제인연합회장 등 400여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14일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박형배 제18대 회장 이임식 및 홍순선 제1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임사에서 “대한민국 새마을 지도자로 일해 온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제 한 명의 지도자로서 함께 동참해나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배·동

료들이 이뤄 놓은 발전을 토대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겠다”며 “도회관의 개보수를 완료하고 수익을 창출, 재정

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해 조직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랑과 파스함이 넘치는 도민의 벼로서 새마을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일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동해·삼척이 강원도에서 가장 중심 도시로 뜨겁게 떠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새마을 정신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한 새마을 회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150만 도민의 구심점의 역할을 해 줄 새마을회의 새마을정신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전인수

2024 03 15 ()

ms투데이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비 6000만원대?도민 평균 연봉 1.7배

진광찬 기자

연간 5517만원→6180만원 12% 올라
 도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3576만원
 청렴도 평가 꼴찌, 각종 구설수에도 인상
 도의원 49명 가운데 38명 검직 신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받는 의정비가 600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도내 직장인 평균 연봉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상이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다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자주 오르면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달 월 15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지자 최대치로 올려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은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517만원이었던 의정비는 12% 가량 오른 6180만원으로 뛰었다.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하는 월정수당 3780만원에 인상된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 기준 도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3576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지방의원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의정비는 기본급 개념의 의정활동비와 의정 자료 수집·활동비용 등을 보전하는 월정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 지방의원은 보수를 받는 검직이 가능하다. 강원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의원 49명 중 38명(77.5%)이 검직을 신고했다. 이 중 17명(34.7%)은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보수 수령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연간 600만원 수준 인상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 사회에선 의정비 섀프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월급은 올려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다. 지난해 A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B 도의원은 도청 공무원에게 감질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 파견 직원 1명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이기 위해 도의원들과 직원 등 총 10명이 우르르 출장길에 나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 역대급 세수 부족과 예산 절감을 고민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비를 올렸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청렴도 등급만 봐도 강원도의원들 능력이나 도덕성은 떨어지는 데다 합리적인 의정비 상승의 근거도 부족한데 급여만 올린다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의정비를 인상하는 게 현실화라고 하는데, 상당수가 검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강원도민일보

폐광 실업자만 2561명...“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02

도, 6월 지정 목표 이달 중 신청 정부, 지정조건 미충족에 부정적 석탄 대체산업 육성시간 필요 “폐광지 특수성 고려해야” 지적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에 태백시와 삼척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이르면 이달 중 신청한다. 강원도는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구소멸과 폐광 등 이중 위기에 처한 폐광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지난 7일 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의결한 태백·삼척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지정 목표는 태백시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 올해 6월로 잡았다.

고용위기지역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 시 생활안정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형 일자리 사업 등 연간 3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각각 올해 6월·내년 6월 문을 닫는다. 폐광으로 인한 경제피해액은 태백시가 3조 3000억원, 삼척시가 5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역 실업자는 2561명으로 추산됐다.

대규모 지역 경제 피해에도 정부는 이들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부정적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을

과 피보험자 수 감소 등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으로 삼는다. 태백시의 1년간 피보험자 증감률은 -0.84%로 해당 고시가 요구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낮은 경우)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기간 전국 피보험자 수 증감률은 2.3%였다. 이밖에 피보험자 수(1년 전·3년 전) 구직급여 신청자 수 등에서도 두 지역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역 고용 여건 등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석탄 산업을 대체할 산업이 두 지역에 자리잡기까지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8552억원 규모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인근에 청정메탄을 생산기지 등을, 삼척시는 첨단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폐광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될 수 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광업소 종사자의 직무 전환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양양군 트랙 업체 시공품질 검증 ‘주먹구구’

05

양양종합운동장 13억 규모 개보수 공사 특혜 의혹

속보=양양군이 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본보 2월13일자 5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업체 시공 품질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증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계약 당시 개선된 기술이라고 양양군에 제시했던 공법으로 시공한 타 지역의 육상 트랙에서 한달여 만에 하자가 발생, 지자체 심의 절차가 ‘객관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A사와 양양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개보수 공사를 위한 13억원 규모

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본보 취재 결과 군은 계약 심의 과정에서 A사로부터 ‘트랙 시공 품질이 향상됐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A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트랙 시트를 연결하는 이음매를 직각 형태로 개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옆 표면이 일직선 수직으로 맞닿는 기존의 시트 형태를 ‘ㄱ’과 ‘ㄴ’자 형태로 변형해 흡착력을 향상시키고 팽창에 따른 벌어짐 현상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양양군의 검토가 ‘수박 겉 핥기’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군은 A사의 시공 품질을 확

계약 심의과정서 업체측 ‘이음매 개선 품질 향상’ 자료 제출 군 시공 현장 점검... 전문가 미동행 육안으로만 확인 알려져 군 “실적·품질·하자보수 등 고려 계약... 시공과정 꼼꼼 점검” 업체 “직각 형태 이음매공법 자사 특허... 조달청 우수성 입증”

인하는 차원으로 지난해 10월 A사가 설치한 강릉원주대 육상 트랙을 한 차례 찾아 육안으로 시트 결면을 살펴봤을 뿐 구체적인 검증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트랙시공 전문가와 동행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별도로 방문, 전문성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변형된 이음매 공법의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랙 시트의

이음매를 ㄱ·ㄴ자로 만들기 위해 접합 부분에 하부시트를 제거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전체 시트의 두께가 훨씬 얇아져 수축과 팽창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음매 벌어짐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A사가 지난해 8월 해당 공법을 도입해 준공한 보은공설운동장은 예산 15억9,900만여원이 투입됐음에도 설치 한달여 만에 이음매 부분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직각 형태 이음매 공법은 자사의 특허로서 이에 대한 우수성을 조달청에 입증해 우수조달 등록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은공설운동장 트랙 이음매 하자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사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시공 품질 향상 여부뿐만 아니라 A사의 실적, 하자 보수 현황 등의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이음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2024 03 15 ()

江原日報

01

춘천 기업혁신파크 내년말 착공 급물살

빠르면 내주 광관리 일원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기업 혁신파크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에 나섰다.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될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일원은 다음 주 중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확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강원자치도는 14일부터 서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를 열고 기업 혁신파크 일원 토지거래허가 지

역 지정안을 심의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남산면 광관리 일원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게 되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춘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사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강원자치도와 춘천시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더존비즈온은 도와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

정에서 환경협의 등도 진행된다.

도와 춘천시는 각종 행정절차에 1년6개월에서 2년간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착공 목표였으나 내년 말까지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부지 및 인프라 조성을 마치고 2033년까지 기업, 주민 입주 등 신도시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김용

우 더존비즈온 회장은 오는 18일 기업혁신파크 현장에서 만나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기업혁신파크는 춘천시와 더존비즈온이 춘천 남산면 광관리 일원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350개 이상의 기업과 6,000세대(3만명)가 입주할 예정이다. 조성 단계에서 1조 3,829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 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운영 단계에서는 5조5,57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만1,31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공사 시작 1년간량 앞당겨질 듯
도지사·시장·더존비즈온 회장
오는 18일 만나 사업계획 논의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02

매년 외국인 10만명 즐기는 글로벌 '화천산천어축제' 성장

군 "2025년도 해외마케팅 최선"

대한민국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얼음 나라 화천산천어축제'의 '관광자원형 분야 글로벌 축제' 선정은 서면 평가에 이어 인지도 조사, 프레젠테이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의미를 더한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 2003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거의 모든 단계의 인증을 거쳤다. 개막 첫해 2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듬해인 2004년 대한민국 예비축제로 선정됐으며 2006년엔 유망축제, 2008년 우수축제, 2010년 최우수 축제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는 5년 연속 '대한민국대표축제' 타이틀을 지켰으며 2019년 국내 겨울축제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육성축제'로 발돋움한 뒤 2020년까지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지위를 지켰으며 지난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축제가 조기 폐막한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개최 때마다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눈이 오지 않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매년 10만여명 안팎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군은 축제 때마다 서울외신기

자클럽을 대상으로 정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 기간에는 외신 프레스 투어도 2회 운영, 화천산천어축제를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2009년 미국의 'TIME'지 표지사진으로 소개됐고 2011년에는 미국의 뉴스채널 CNN이 세계적 여행잡지인 '론리플래닛'을 인용해 화천산천어축제를 '겨울철 7대 불가사의 (7 wonders of winter)'로 보도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산천어축제가 세계에 대한민국 관광축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화천산천어 축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의호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16

양구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농사 짓는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 33억원 확보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스마트팜 부지 열교환기 등 설치

양구군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3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온실단지

에 지열 등 재생에너지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에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안면 이현리 일원 부지 7.3ha에 시설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되는 양구군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은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2025년까지 총 9개 구역의 스마트팜과 작물재배용 첨단온실, 스마트팜 장비 등이

조성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총 33억7000만원이 투입돼 2025년까지 스마트팜 부지에 지열 냉난방을 위한 열교환기(천공)와 열원 저장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시설과 스마트팜이 결합돼 강원 북부권 스마트팜 거점 형성과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팜 인근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운영지원센

터, 청년혁신주거타운 조성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흥원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업 이미지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영비 절감 등에 따른 농업소득 극대화를 기대한다"며 "양구군이 미래 농업 발전을 이루면서 스마트농업의 대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江原日報

2024 03 15 ()

20

동해 전지훈련 오면 400만원 파격 지원

시 선수단 유치 인센티브
시설 사용료 면제 등 혜택
“전국 스포츠마케팅 강화”

【동해】명품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동해시가 전지훈련선수단에게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개별 전지훈련선수단의 연중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3일(2박) 이상 체류(숙박)하는 전지훈련팀에는 시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전지훈련선수단 환영 오·만찬 1회, 음료·간식·천막·특산품 등을 제공한다.

특히 5일(4박) 이상 체류하는 전지훈련팀에는 추가로 지원 기준에 따라 팀별 최대 400만원까지 체재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동해를 방문하는 모든 전지훈련선수단에게는 무릉별유천지, 도재비골스카이밸리, 무릉계곡, 천곡동굴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초·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는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150개팀 2,599명의 전지훈련선수단을 유치, 84억6,000만여원의 직간접 경제 유발효과를 얻은 만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시 체육교육과장은 “전국적으로 동해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올해 유치가 확정된 전국·도 단위 28개 대회도 빈틈없는 준비와 함께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2024 03 15 ()

05

강원도민일보

포근한 날씨에 벌써부터 꽃눈 빼꼼, 봄꽃 축제 빨라진다

3월 기온이 평년보다 오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벚꽃 개화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벌써 북강릉 벚나무 관측목에서 올해 첫 발아가 확인, 벚꽃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들도 일정을 당기는 등 덩달아 분주해졌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벚꽃개화예측시기는 춘천 4월 7일, 강릉 3월 31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보다 약 4일 앞당겨진 셈이다. 지난해에도 역대급 봄 더위에 강릉 3월 26일, 춘천 4월 1일로 유독 빠른 봄

꽃개화를 목격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빠른 벚꽃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난 8일 북강릉 벚나무관

북강릉 벚나무 관측목 첫 발아

온화한 기온 이른 개화 전망

강릉·삼척 봄꽃 축제 앞당겨

측목에서 올해 첫 발아를 확인했다. 이는 평년보다는 16일,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다. 벚꽃은 발아 후 4일에서 보름 가량 걸린다. 올해도 벚꽃을 빨리 볼 수 있는 이유는 높은 기온 탓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80% 정도로 예측됐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도 비슷할 전망이다. 지난해도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지면이 가열된 상황에서 중국 남쪽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풍까지 유입돼 기온이 높아져, 이른 벚꽃을 볼 수 있었다. 앞당겨진 벚꽃 개화에 지자체들도 축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동해안 대표 봄꽃 축제인 '경

포벚꽃축제'도 빨라진 개화 시기를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열린다. 지난해 역대 가장 이른 개막한 3월 31일보다도 이를 앞당겼다.

강릉시는 기후가 급변하는 만큼 앞당겨진 벚꽃 개화일 탓에 행사 일정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정을 작년보다 이를 당기긴 했는데,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만큼 축제 일정 변경에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벚꽃이 일찍 피면서 다른 봄꽃 축제도 이른 축제를 연다.

삼척맹방유채꽃축제도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앞당긴 오는 29일 축제를 연다. 삼척시 관계자는 "바뀌는 기후 탓에 축제 개최 시점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

렵다"며 "전국적으로 벚꽃 축제가 일찍 열리는 만큼 유채꽃축제도 일정도 당겨 일정을 정했다"고 했다.

당분간 영서 지역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최대 2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3~1도, 산지 0~1도, 영동 8~1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영서 16~19도, 산지 12~14도, 영동 21~22도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3도, 산지 -2~-1도, 영동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영서 17~20도, 산지 14~15도, 영동 12~16도의 기온을 보이겠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 19

중국 전자상거래 피해 막아야

-제품 하자 사례 잦아... 의료기기등 산업도 영향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 수를 불려, 경제적 사회적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데다, 국내 산업 기반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의료기기들이 대량 유입돼 강원 의료기기 업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은 이들 전자상거래 유통 구조와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와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품목은 조리기구 등 각종 생활용품과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중국산 직구에 따른 도내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쿠폰으로 무드 전등을 구매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가 하면, 일부 제품은 먼지가 묻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아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국계 업체는 신선 식품도 다양하게 취급해, 유통업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대형 할인 매장은 지난 1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료품 잡화 부문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또 다른 매장도 월단위로 할인 행사를 도입해 신선·가공식품 등을 50% 할인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원 도내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의료기기입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의료기기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허가 품목인 의료기기 제품들도 별다른 통관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허가 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주문한 상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용 관련 수입품 등이 도내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초저가 직거래는 도내 산업·기업계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얼마만큼 세밀하게 거래 제품을 점검할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또한 의료기기를 포함해 비슷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제조업 등 기업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칫 중국 제품이 한국 시장을 점령한다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을 불식시킬 확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5 ()

/ 19

물가 공포에 실업률 민생 챙겨야

-정부대기업·고소득자 조세혜택으로 양극화 심화 안돼

강원 고용 상황이 작년 이맘때보다 악화됐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최신 고용동향에서 도민 생계와 직결된 고용 관련 지표인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을 망라한 수치가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9월 취업자 86만8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 2월 9만명 감소해 78만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올 2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전년 2월 대비 0.4%p 상승하면서 3000명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고용률은 0.7%p 내려앉으며 줄어든 취업자는 무려 7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유통서비스업 종에서의 취업자는 무려 1만3000명이 빠졌습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계에서도 9000명이 취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자영업 취업 종사자는 10.6%인 1만9000명이 줄어들어 악화된 실물경제의 타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실물경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못한 신호를 보입니다.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4000명이 줄었고,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무려 9000명이나 증가해 강원경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식비와 식료품비

등을 중심으로 물가인상세가 지속되면서 가계 압박이 큰 가운데 취업 상황마저 암울합니다. 강원은 타시도보다 초단기, 단기 비정규직 불안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민경제가 더 어려워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영업자 급감은 상가 공실률로 이어지며 임대업에도 타격을 주며 부정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대학 주변 상가에서는 개강 특수를 기대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 발길이 줄어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높은 물가에 월세까지 올려받으면서 지출 부담으로 원룸촌보다 통학을 택하면서 상권은 더 위축됐다고 토로합니다. 최근 건설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수직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 업계는 또 다른 형태의 암담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마저 세금 감면 및 비과세 정책을 고소득자 및 대기업 위주로 펼쳐왔습니다. 대기업 및 고소득자 조세지출 수혜 비중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저소득자, 비정규직 등 취약층 위험도를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우선순위에 놓는 실질적인 민생경제부터 챙겨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3 15 ()

/ 25

윤 대통령도 약속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다.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6월 나올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직접 약속한 데다 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등 신규 사업의 영향으로 예타 판관 사업성도 개선된 것으로 전해져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남부권은 1960~1970년대 활발한 공업지역이었다. 과거 삼척군(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은 인구 30만명의 전국 제일의 군이었고 막대한 국가 재정 수입을 올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국가의 주력 산업 전환과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재 이 지역은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해안선의 해변 침식과 어족 자원의 고갈, 삼척·태백·정선 등 폐광지역의 고령화·공동

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 대체 산업이 육성됐지만 관광 인프라와 연결 고속도로의 부족, 카지노 산업의 연관 산업 발전의 한계성으로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물류비의 증가 때문에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역 발전은 지역을 개발할 정책과 투자, 물류를 이을 교통 인프라가 결합돼야 가능하다. 한쪽이 부족한 상태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의 절박성이 깊이 인식돼야 한다. 지역에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개발 사각 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동해안과 강원 남부권, 그리고 중부권과 호남권을 잇는 대동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최후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해도 국비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정부의 사업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경제성·정책성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江原日報

2024 03 15 ()

/ 25

道 취업자 수 감소세, 고용시장 대책 마련해야

도내 자영업자 수가 10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도 1년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강원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자영업자는 16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10.6%) 줄었다. 이는 2013년 11월(-2만300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더욱이 2023년 11월(-5,200명) 당시 연중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된 뒤 12월 1만7,100명, 올 1월 1만8,100명 등 3개월 연속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여파로 지난 달 15세 이상 도내 전체 취업자는 6,800명(-0.9%) 준 77만9,500명으로 1년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최근 1년간 급격히 악화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5만5,0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2021년 11조5,000억원에 그쳤으나 2022년 14조7,000억원으로 28.6% 늘었다. 그리고 2023년 들어서면서 15조4,000억원으로 또 늘어났다. 이후 보증 사고율이 오르면 신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임계치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방안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도내 자영업자는 20만2,1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200명이나 사라졌다. 자영업이 더는 생계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작은 점포나 공장의 폐업은 경영자와 가족의 파산을 뜻한다. 자칫 도내 자영업자의 무더기 도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다. 자영업은 지역 경제의 실패줄이자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번성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이 돌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뇌관이다.

이 상태라면 자영업자도, 지역 경제도 붕괴될 수 있다. 더는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가 건전성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진한 고용시장은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도내 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 고용 여력이 많지 않다. 게다가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건설업종과 내수업종의 불황도 고용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자영업자 감소는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경제 쇠락의 상징과도 같다.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라 당장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기도 어렵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혁신과 관련한 자영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자영업자 10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 위협받지 않아야 성장 도모할 일자리 정책 시급한 과제